

한국 지리구분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Korean Geographic Area Classification Systems

곽철완(Chul-Wan Kwak)***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공공기관의 지역범주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순서를 가진 지역범주 |
| 2. 연구방법 | 2. 순서가 없는 지역범주 |
| 3. 연구 제한점 | IV. 한국의 지역범주 및 나열순서 방향 |
| II. 주요 분류체계에서 지역구분 | 1. 지역범주 |
| 1. DDC와 LCC의 지역구분 | 2. 범주 나열순서 |
| 2. KDC의 한국 지역구분 | V.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논문은 국내 대부분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지리구분 분류체계의 지역범주의 포괄성과 나열에서 변방 우선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 외국의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국내 공공기관의 지역범주를 조사 및 분석하여 한국 지리구분 분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도서관 분류체계의 지역범주의 단위와 나열순서를 분석하고, 생활권 개념의 공공기관의 지역범주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서관 분류체계에서 지역범주의 단위와 나열순서는 다양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지역범주의 단위 역시 다양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은 지역범주의 단위는 전국을 3단계의 계층구조가 가능하도록 최소 지역범주를 시, 군 2-3개를 합한 단위가 적합하며, 나열순서는 지역범주 내의 중심지역에서 시작하여 외부지역으로 순환하는 형태이다.

주제어 : 지리분류체계, 지역범주, 한국지리구분, 도서관분류, 지리정보

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the geographical categories and arrangement of library classifications and public organizatio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geographical category comprehension and canon from the north-west to south-east in Korean library classification and then to develop a Korean geographical classification system. Research method was the examination of different type of library classifications(DDC, NDC, LCC) and geographical categorizations of the public organiza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as not a principle of categorization and arrangement for geographical information. This study proposes to the three hierarchical structures and radial category arrangement from center area to side area for developing Korean geographical classification.

Key Words : geographical classification systems, area categories, Korean geographical categories, library classification, geographical information

* 이 논문은 2004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2004. 6. 11-12, 부산대학교)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한 것임.

*** 강남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 (ckwak@kangnam.ac.kr)

· 접수일 : 2004. 5. 28 · 최종심사일 : 2004. 6. 11 · 최종심사일 : 2004. 6. 1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 분류체계는 기록된 지식을 대상으로 유사한 것은 함께 모으고 다른 것은 분리시키면서 집단화하는 과정이다¹⁾. 이때 분류의 대상이 되는 개체는 다양하여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집단화되는 과정을 밟는다. 예를 들면, DDC나 KDC와 같은 열거형 분류체계에서는 학문의 영역에 의해서 집단화되기도 하며, 문학의 언어, 형식, 시기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지리구분은 지역(region)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 중심으로 집단화시키고 있다.

분류의 기본적인 목적이 정보를 찾고자하는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제의 순서를 정하고 유지하는 것이며, 분류체계는 자료 조직을 위한 구조를 제공하여 개개의 문헌이 특정한 기준에 따라 검색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이다²⁾. 그렇다면, 현재 국내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리정보에 대한 분류체계가 위의 목적에 맞도록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리정보 분류를 위해서 공공도서관과 소수의 대학도서관에서는 KDC를 사용하고 있으며, DDC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는 KDC를 기반으로 하여 확장된 다양한 형태의 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1996년에 출판된 KDC의 지리구분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십진 분류체계의 특성에 의해 범주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하위범주는 여러 시, 군, 구(區)가 모여져 있다. 여기에서 KDC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 범주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일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지리구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KDC에서 사용하는 지리범주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고 일반인들에게 친근한 지리구분 분류체계 구축에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사용되었다. 첫째, 도서관 분류체계에서 사용하는 지역의 범주화 범위와 범주의 순서 파악을 위해, 도서관 분류체계를 분석하

1) Krishan Kumar,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rev ed.(New Delhi : Vikas, Publishing House PVT Ltd, 1981), p. 1.

2) Rita Marcella and Robert Newton, *A New Manual of Classification* (Brookfield : Gower, 1994), p. 3.

었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KDC는 DDC을 기본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DDC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리구분의 틀을 분석하였으며, 또 다른 열거형 분류체계인 LCC의 지리구분을 조사하였다. 둘째, 한국의 지역 범주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지리 구분 체계를 분석하였다. 전국을 체계적으로 구분한 우편번호 시스템을 비롯하여, 동일 생활권으로 구분되는 방송권역권 및 행정기관의 관할 구역을 조사하였다.

3.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KDC 및 공공 기관에서 사용되는 지리범주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에 의한 지역과 장소에 대한 구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산, 강 등은 지리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중심의 구분으로 한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도서관에서 소장하는 지리 관련자료를 분류하는데 직접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분류표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만 포함시켰다.

II. 주요 분류체계에서 지역구분

1. DDC와 LCC의 지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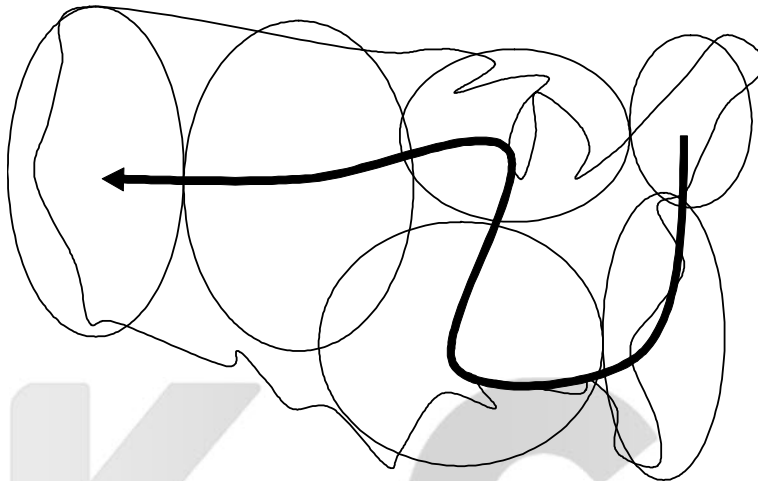
1.1 미국

DDC³⁾와 LCC⁴⁾에서 보여주는 미국의 지리구분은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역별로 8개 혹은 9개 주(states)를 모아 대범주를 만들고 각 주에서 지역별로 세분하고 있다. 지역을 8개 혹은 9개로 나눈 이유는 10진 분류체계를 갖추기 위함이었기에 LCC의 지역구분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표 1>참조). DDC에서 지역별 순서는 대서양 연안의 북쪽을 시작으로 남쪽 카리브해 연안의 지역으로 순서를 정하고 오대호 연안의 중부지역에서 서쪽으로 전개하여 태평양 연안의 알래스카 주까지 나열하고 있다(<그림 1>참조). 이 순서는 미국이 개척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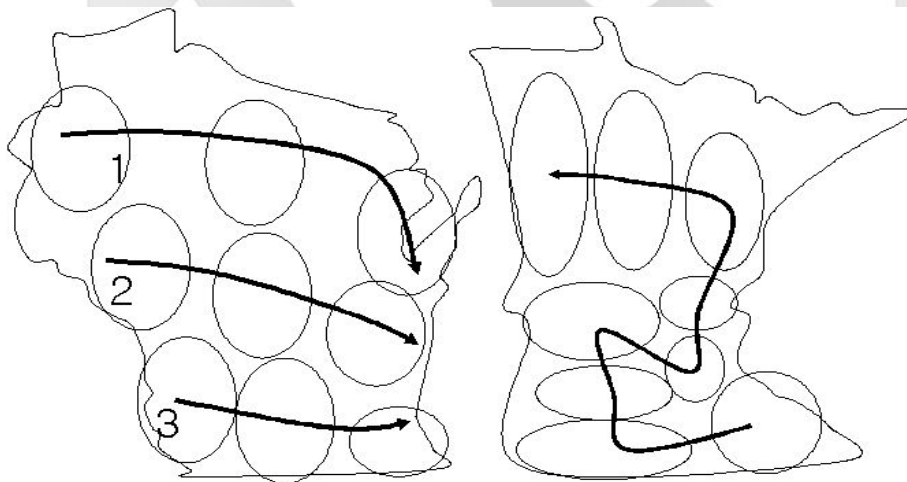
3) Dewey, Melvil,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2nd ed. (Dublin: OCLC Online Computer Center, 2003)

4)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Class G, Geography Maps anthropology Recreation, 4th ed.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1976)

는 순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주는 각 주에서 지역별로 구분하고 구분된 지역에서 county로 세분된다 하지만 주에서 구분된 지역별 나열 순서는 특별한 규칙을 보여주지 않고, 지역 특성별로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Wisconsin 주의 경우, 북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북중부, 북동부, 중서부, 중부, 중동부, 남서부, 남중부, 남동부 순으로 나열하였다(<그림 2>참조). 하지만, 인근의 Minnesota 주는 남동부, 남서부, 남서중부, 서중부, 서동부, 동중부, 북동부, 북중부, 북서부의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또한 New York주는 남서쪽 끝에 있는 New York시가 가장 앞에 나열되어 있고, 다음으로 New York시 주변의 지역을 배정하였다.



<그림 1> DDC의 미국 지역구분 및 나열 순서



<그림 2> DDC의 미국 Wisconsin주(왼쪽) 및 Minnesota주(오른쪽) 지역구분 및 나열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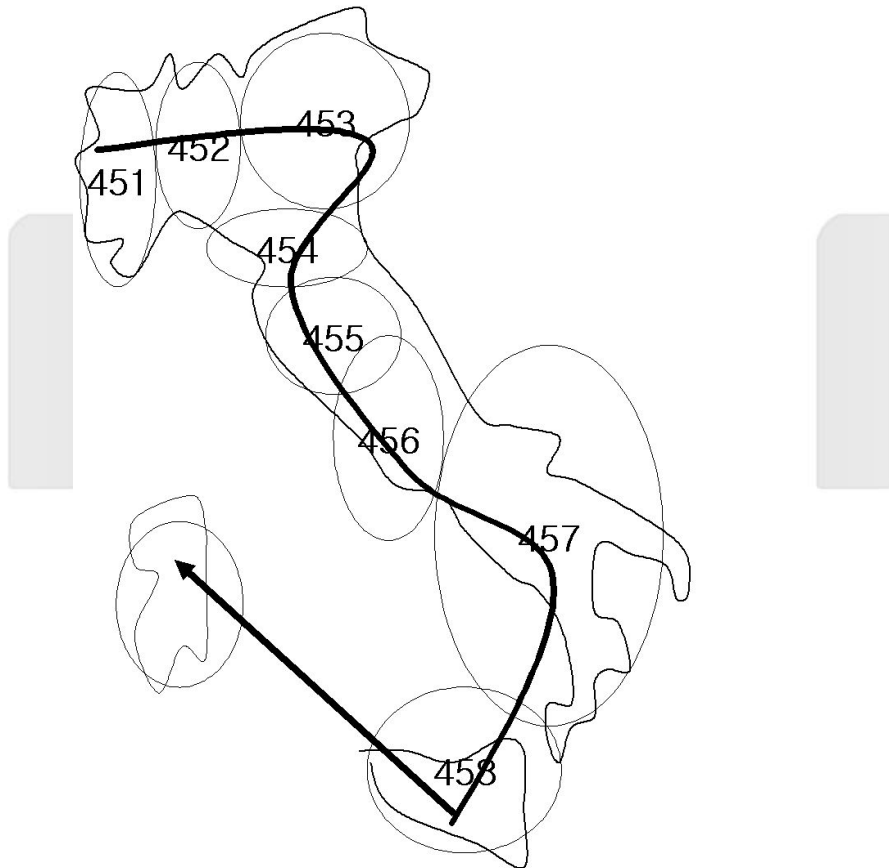
LCC의 경우는 미국 전역을 크게 6개 지역으로 1차 구분하고, 1차 구분된 지역을 지역에 따라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2-3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표 1>참조). 지역을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DDC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북동쪽의 Maine주에서 남부 Florida까지의 지역구분을 DDC에서는 '북동부지역'과 '남동부지역' 두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LCC에서는 '뉴잉글랜드', '중부대서양주', '남동부대서양주'로 좀더 세분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범주에 따라 4~6개주를 하나로 묶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역의 나열 순서는 DDC와 유사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동하는 방향과 유사하다. 하지만, 주(states)내에서 지역세분은 없고 각 county를 자모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 방법은 정보 탐색에 매우 효과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지리적 감각이 없다면, 어느 지역범주 속에 찾고자하는 지역이 속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LCC는 계층별 범주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상위 지역범주는 지리적 순서로 하위 지역범주는 지명을 알파벳 순서로 되어있다.

<표 2> DDC와 LCC의 미국 지역구분 비교

DDC		LCC			
미국 -73		미국			
북동부 -74	Maine에서 New Jersey까지 9개 주	북동부 주	북동부 대서양 주	뉴잉글랜드	Maine에서 Connecticut까지 6개주
남동부 -75	Delaware에서 Florida까지 8개주 및 1특별구		중부 대서양 주	중부 대서양 주	New York Washington DC까지 3개 주 및 1특별구
남중부 -76	Alabama에서 Kentucky까지 8개 주	남부 주	남동부 주	남동부 대서양 주	Virginia에서 Florida까지 6개주
			남부 중앙 주	동남 중부 주	서남 중부 주
북중부 -77	Ohio에서 Missouri까지 8개주	북중부 주	동북부 중부 주		Ohio에서 Wisconsin까지 5개주
서부 -78	Kansas에서 New Mexico까지 8개주	북서부 주	서북부 중부 주		Minnesota에서 Kansas까지 7개주
		태평양, 산악지방 주	태평양 북서부		Montana에서 Oregon까지 5개주
태평양 해안 -79	Arizona에서 Alaska까지 8개주	남서부 주	신 남서부		Colorado에서 California까지 6개주
					Alaska
-969	Hawaii				Hawaii

1.2 이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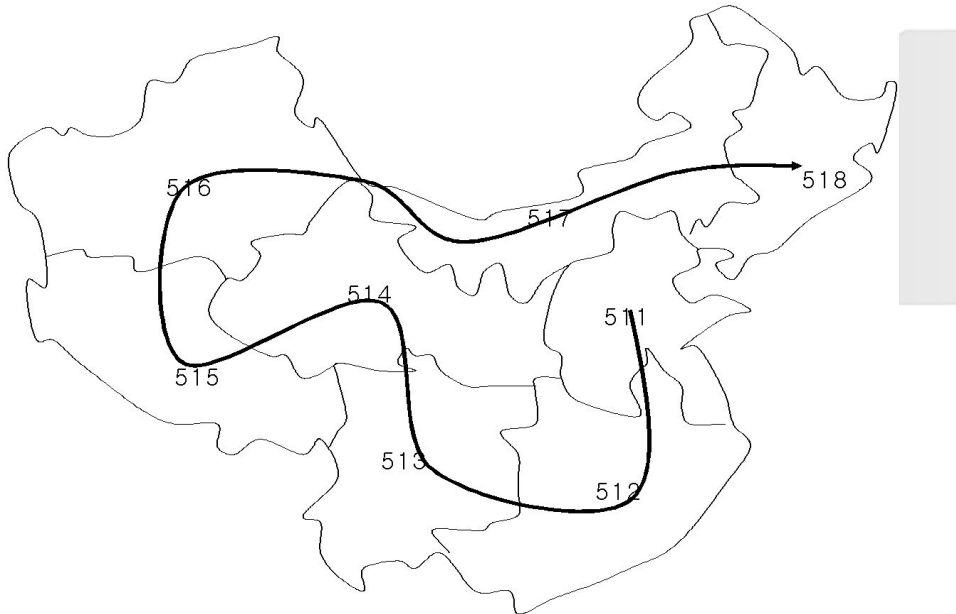
미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역범주와 나열은 미국지역 구분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DDC에서 이탈리아는 전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나열 순서는 프랑스와 인접한 북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북동부를 거쳐 남부지역으로 전개된다. 이탈리아는 미국과 달리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로 로마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지역에 대한 나열 순서는 역사적인 발전과정과 상관없이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나열하고 있다(<그림 1>참조). LCC에서는 이탈리아 국가 구분아래 각 지방을 자모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보여주는데, 미국은 주(states) 범주 내에서 지역을 알파벳순으로 배열하였다. 이는 미국의 각 주를 하나의 국가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미국인 입장에서 외국을 생각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지명이 접근점으로 중요하지, 지역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는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림 3> DDC의 이탈리아 지역구분 및 나열 순서

1.3 일본과 중국

일본에 대해서 DDC는, 혼슈(本州), 큐슈(九州), 시코쿠(四國), 홋카이도(北海島)로 크게 구분한 후 세분하고 있어서 일본인들이 만든 일본십진분류표(NDC)와 대분류에서 차이를 보여 준다. 일본십진분류표(NDC)⁵⁾에 의하면, 북쪽 홋카이도 지방을 시작으로 남쪽 큐슈 지방으로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DDC에서 혼슈지방을 세분하면 NDC와 동일한 도호쿠(東北)지방, 간토(關東)지방, 호쿠리쿠(北陸)지방, 추부(中部)지방, 긴키(近畿)지방, 추고쿠(中國)지방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DDC에서는 중국을 크게 8개 지역별주로 나누고 북경과 상하이 를 포함하는 지역을 시작으로 서해 해안선을 따라서 나열되고 신강위구르 자치구를 거쳐 만 주로 나열하고 있다(<그림 4>참조). 이 구분은 역사적인 특성을 많이 반영한 구분형태라 생 각이 든다. 특히, 중국의 변방지역은 한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비하여 문화적, 역사적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들 지역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류기호를 부여하고 있었다(예, DDC 분류기호 515, 516, 517 등). DDC에서 일본과 중국을 지역구분과 배열하는 기준은 일차적으로 몇 개의 지방으로 구분한 후 세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중심이 되는 지역을 시작으로 그 국가 의 특성에 맞추어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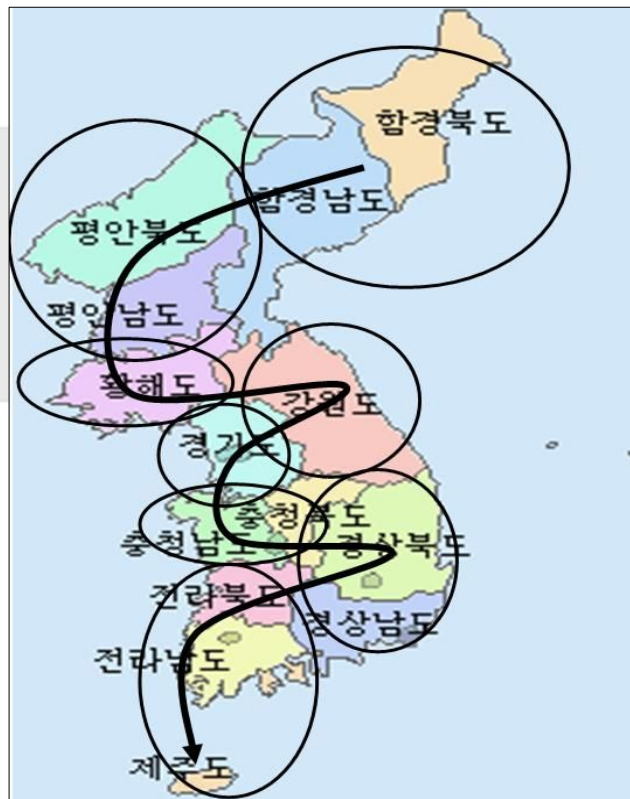


<그림 4> DDC의 중국 지역구분 및 나열 순서(숫자는 DDC 분류기호임)

5) www.trc.co.jp/trc-japa/search/ndc_2.htm

2. KDC의 한국지역 구분

한국십진분류법(KDC)에서 한국의 지역구분은 전국을 9지역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 지역에 도(道)를 앞세우고 다음에 시·군을 나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그림 5> 참조). 지역별주의 나열 순서는 북동쪽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전개하여 남서쪽인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 지역 범주의 최소단위는 여러 개의 시·군이 모인 집단이며, 각 지역별주 내에서 나열은 전국을 9개 지역별주의 나열 방법과 유사한 원칙에 의해서 북동쪽을 시작으로 남서쪽으로 끝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경우 911.52(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 911.53(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과주군) → 911.54(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군,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군, 양평군) → 911.55(인천광역시, 부천시) → 911.56(김포군) → 911.57(수원시, 오산시, 화성군, 안양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 911.58(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여주군, 이천군) → 511.59(용인군, 안성군, 평택시)으로 되어있어, 경기도 북동쪽에서 시작하여 북서 → 중부 → 남동 → 남서로 나열되어 있다(<그림 6>참조).



<그림 5> KDC의 한국 지역구분 및 나열순서

Ⅲ. 공공기관의 지역범주

공공기관에서 만든 지역범주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주민들이 동일 지역권이라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 지역범주를 만들어 사용하는 예이다. 기관에 따라서 지역 범주의 순서를 부여한 것도 있으며 특별한 순서를 가지지 않고 단순히 범주만을 구성한 것도 있다.

1. 순서를 가진 지역범주

1.1 우편번호

우편번호는 각 지역을 구분하고, 구분된 지역범주를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서울특별시를 시점으로 강원도 → 충청남북도(대전광역시 포함) → 경기도(인천광역시 포함) → 전라남북도(광주광역시 포함) → 경상남북도(부산, 대구, 울산광역시, 제주도 포함) 순으로 전개되고 있어 서쪽 → 동쪽 → 서쪽 → 동쪽으로 전개하는 형상을 보여준다(<표 2> 참조). 하지만, 경기도는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각 도에서는 도청소재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남쪽을 우선(예를 들면, 충청남도가 충청북도에 우선)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부분적으로 서쪽 → 동쪽 전개원칙이 적용되지만, 대부분은 대도시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지방체신청 중심으로 우편번호를 전개한 결과라 여겨진다.

세부적인 지역구분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에서 71→> 달성군, 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 73→ 구미시, 74→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75→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76→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 77→ 영천시, 78→ 경주시, 79→ 포항시, 울릉군의 순서로 지역범주가 만들어지고 나열되어 있다. 나열순서는 대구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지역을 중심에서 시작하여 서쪽 → 북서쪽 → 북동쪽 → 남동쪽 순으로 나열하였다. 이 모습은 중심에서 시작하여 시계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표 3> 우편번호의 지역구분

지역명(우편번호)	
서울특별시	중구(10) 종로구(11)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12)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도봉구, 동대문구, 노원구(13) 용산구, 강북구, 광진구(14)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15)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20)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21) 횡성군 원주시(22)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23) 동해시, 삼척시(24) 홍천군, 인제군·양구군(25) 철원군(26)
대전광역시	전지역(30)
충청남도	공주시, 금산군(31) 논산군, 부여군, 서천군(32) 아산시, 천안시 연기군(33) 당진군, 예산군, 청양군(34)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35)
충청북도	청주시,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청원군(36)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37) 충주시(38) 제천시, 단양군(39)
인천광역시	전지역(40) 단, 강화군(41)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41) 과천시, 광명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42) 의왕시, 안양시, 군포시(43)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44) 안성시, 평택시(45) 광주시, 여주군, 하남시, 이천시, 성남시(46)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47) 동두천시, 연천군,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군(48)
광주광역시	전지역 50
전라남도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화순군(51) 나주시,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함평군(52) 목포시, 무안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신안군(53) 광양시, 순천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54) 여수시(55)
전라북도	전주시,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56)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부안군(57) 정읍시, 고창군(58)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59)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60) 강서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기장군(61)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군(62) 마산시, 고성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63) 김해시, 창원시, 진해시(64) 거제시, 통영시(65) 사천시, 진주시,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66), 거창군, 함양군, 함천군(67)
울산광역시	전지역(68)
제주도	전지역(69)
대구광역시	전지역(70)
경상북도	달성군, 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71) 구미시(73)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74)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75)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76) 영천시(77) 경주시(78) 포항시, 울릉군(79)

1.2 시외전화 지역번호

시외전화 지역번호도 위의 우편번호체계와 유사하게 서울특별시를 시점으로 하여, 경기도 → 인천광역시 → 강원도 → 충청남도 → 대전광역시 → 충청북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 → 제주도 순으로 나열되었다(<표 3> 참조). 지역별로 보아서 남도 → 광역시 → 북도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영남지방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번호는 전국을 대단위 나눈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4> 시외전화 지역번호

지역번호		지역
02		서울특별시
03	031	경기도
	032	인천광역시
	033	강원도
04	041	충청남도
	042	대전광역시
	043	충청북도
05	051	부산광역시
	052	울산광역시
	053	대구광역시
	054	경상북도
	055	경상남도
06	061	전라남도
	062	광주광역시
	063	전라북도
	064	제주도

2. 순서가 없는 지역범주

2.1 국세청의 지역구분

국세청의 지방세무서는 경제권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지역구분인데, 전국을 크게 6개 지방국세청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 세무서를 설치하여 관할구역을 설정하고 있다(<표 4> 참조). 지방국세청은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를 포함하며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를 관할

한다. 이러한 지역구분은 행정구역에 크게 구속되지 않고 인접한 경제권역별로 구분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중부지방국세청의 영월세무서의 경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일부를 관장하고 있으며, 원주세무서는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일부를 관장하고 있어 평창군의 경우 두 지역으로 분할되어 영월세무서와 원주세무서 두 곳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대한 관할구역을 살펴보면, 김천세무서 → 김천시, 성주군; 상주세무서 → 상주시, 문경시; 안동세무서 → 안동시,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세무서 → 영덕군, 울진군; 영주세무서 →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등으로 보통 2-3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다. 기준은 우선적으로 그 지역의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범주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표 5> 국세청의 지역구분

세무서(지역명)	
서울지방 국세청	강남 외 22개
중부지방 국세청	인천(동구, 중구, 남구) 남인천(남동구, 연수구) 북인천(부평구, 계양구) 서인천 서구, 강 화군, 김포시) 고양(고양시, 파주시) 남양주(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구리시) 동수원 (수원시 장안구 전역, 용인시) 수원(원전구 전역) 부천(부천시, 광명시) 성남 성남시) 안 산(안산시, 시흥시) 안양(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이천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 하남시) 평택(평택시, 안성시) 의정부(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군, 포천군, 연천군, 철원 군) 강릉(강릉시, 평창군 일부) 영월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일부 원주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일부 삼척(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춘천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홍천군, 인제군)
대전지방 국세청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일부, 금산군) 서대전 서구 유성군 대덕구일부 공주 공주시 연기군) 논산(논산시, 부여군) 보령(보령시, 서천군) 서산(서산시, 태안군) 예산 예산군 당진군) 천안(천안시, 아산시) 홍성(홍성군, 청양군) 영동(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제천 (제천시, 단양군) 청주(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일부) 충주(충주시, 음성군, 괴산 군 일부)
광주지방 국세청	광주(동구, 남구, 화순군, 곡성군, 북광주 북구, 장성군, 담양군) 서광주(서구, 광산군 영광군) 나주(나주시, 영암군 일부) 목포(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일부) 순천 순 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여수(여주시) 해남(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 군, 장흥군) 군산(군산시) 남원(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일부) 전주(전주시, 완주 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일부) 익산(익산시, 김제시) 정읍(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세무서(지역명)	
대구지방 국세청	남대구(남구, 달서구 일부, 달성군) 동대구(동구, 수성구) 북대구(북구, 중구) 서대구(서구, 달서구 일부) 경산(경산시, 청도군) 경주(경주시, 영천시) 구미(구미시, 칠곡군) 김천(김천시, 성주군) 상주(상주시, 문경시) 안동(안동시,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영덕군, 울진군) 영주(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포항(포항시, 울릉군)
부산지방 국세청	동래(동래구, 연제구) 부산진(부산진구, 동구) 북부산(강서구, 북구, 사상구) 서부산(서구, 사하구) 수영(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중부산(중구, 영도구) 금정(금정구, 기장군, 양산시) 거창(거창군, 함양군, 함천군) 김해(김해시, 밀양시) 마산(마산시, 합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창원(창원시, 진해시, 통영(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울산광역시) 제주(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2.2 검찰청의 지역구분

검찰청의 지역구분은 인구증가와 행정구역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행정구역이 분화되면서 검찰청의 지역구분은 세분화되었다. 검찰청은 시·도를 기준으로 13개의 지방검찰청으로 구분하고, 각 지방검찰청 아래에 몇몇 시·군을 묶어서 하나의 지청이 관할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다(〈표 5〉참조). 지청의 관할구역을 행정구역으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검찰청 산하의 고양지청은 고양시와 파주시를 포함하는데 비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산하의 부산지청은 11개 구(區)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할구역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교통과 인구가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된다. 이와 같은 지역구분은 동일 법률지역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경상북도 북부지방을 살펴보면, 김천지청 → 김천시, 구미시; 상주지청 →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안동지청 →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영덕지청 →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 의성지청 →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등이다. 검찰청의 지역범주는 국세청의 지역범주와는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검찰청의 상주지청은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을 포함하지만, 국세청의 상주세무서는 상주시와 문경시만 포함하고 있다.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을 하나의 지역범주로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나, 지역범주의 크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7> 검찰청의 지역구분

지청(지역명)	
서울	중앙(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남부(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동부(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 북부(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서부(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용산구) 의정부(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철원군) 고양(고양시, 파주시)
수원	수원(수원시,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성남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안산(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여주(여주군, 이천시, 양평군) 평택 평택시, 안성시)
인천	인천(인천광역시) 부천(부천시, 김포시)
춘천	춘천(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강릉(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원주(원주시, 횡성군)
대전	대전(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공주(공주시, 청양군) 논산(논산시, 부여군) 서산(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천안시, 아산시) 홍성(홍성군, 보령시, 예산군, 서천군)
청주	청주(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영동(영동군, 옥천군) 제천 제천시, 단양군) 충주(충주시, 음성군)
전주	전주(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군산시, 익산시) 남원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정읍(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광주	광주(광주광역시,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나주시) 목포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함평군) 순천(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장흥(장흥군, 강진군) 해남(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제주	제주(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대구	대구(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경주(경주시) 김천(김천시, 구미시) 상주(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안동(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영덕(영덕군, 울진군, 영양군) 의성(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포항(포항시, 울릉군)
부산	부산(강서구, 금정구, 동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서구, 영도구, 중구) 동부(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울산	울산(울산광역시, 양산시)
창원	창원(창원시, 마산시, 김해시, 진해시) 함안군) 의령군) 거창) 거창군) 함창군) 함양군) 밀양(밀양시, 창녕군) 진주(진주시, 사천시, 남해시, 하동군, 산청군)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2.3 KBS TV 방송국의 지역구분

방송국의 시청권역은 문화적인 생활권이라 여길 수 있는 지역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크게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구분하고 부분적으로 지역 방송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본사를 비롯하여,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방송총국으로 구분되어 있다(<표 6>참조). 산악지역이 많은 춘천방송총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강릉, 속초, 원주, 영월, 태백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시청권역은 부분적으로 중복되지만, 문화 공유 측면에서 동일 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표 8> KBS 지방방송국의 방송권

방송국	지역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방송총국	부산광역시
창원방송총국	울산 울산광역시, (일부: 경주시, 포항시, 양산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일부: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합천군, 함양군, 산청군) 진주 진주시, (일부: 거창군, 산청군, 합천군,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대구방송총국	대구광역시, (일부: 청도군, 경주시, 김천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달성군, 칠곡군) 안동 안동시, 영주시, (일부: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문경시) 포항 포항시, 울진군, 울릉군, (일부: 영덕군, 경주시)
광주방송총국	광주광역시, (일부: 담양군, 화순군, 곡성군, 장성군, 구례군, 곡성군, 장흥군, 보성군, 영광군)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완도군, 진도군 여수 여수시 전역 순천 순천시 전역, 완도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전역
전주방송총국	전주시, 남원시, 순창군, 구례군,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 장수군 군산 군산시 전역, 전북 일원 남원 남원시, 전주시 일대, 순천시, 구례군, 고창군, 부안군, 무주군, 임실군
대전방송총국	대전광역시, 공주시, 논산시, 부여시, 연기군,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청원군, 아산시, 천안시, 청원군, 보령시, 당진군, 홍성군, 금산군 공주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당진군, 청양군
청주방송총국	청주시, 진천군, 대전광역시, 충주시, 천안시, 음성군, 괴산군, 청원군, 연기군, 안성시, 보은군, 이천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옥천군, 영동군 충주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춘천방송총국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일부 원주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홍천군, 영월군 일부 영월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홍성군, 영월군 태백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봉화군 속초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제주방송총국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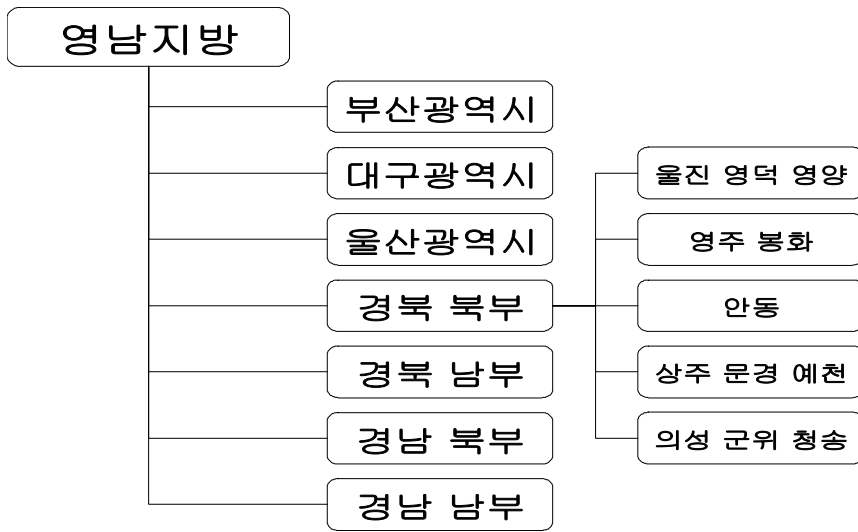
IV. 한국의 지역범주 및 나열순서 방향

여러 종류의 도서관 분류체계와 국내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구분을 살펴보면 두 가지 기준점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최소의 지역범주의 단위를 결정하는 것이며, 둘째, 지역범주의 나열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1. 지역범주

지역범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상위 지역범주(대범주), 지역범주 계층 수, 최하위 지역범주(소범주)를 결정해야 한다. 우선 최상위 지역범주에 대해 KDC에서는 9개 지역범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역범주의 계층 수는 2단계로 되어 있으며, 최하위 지역범주는 여러 시·군이 모여져 있다. 최상위 지역범주는 우리 나라의 자연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인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구분한 지역 범주는 시외전화 지역번호의 5개 지역구분으로부터 검찰청의 13개 지역구분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위의 지역구분은 한반도 남쪽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북쪽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한 최소 숫자의 지역범주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동일 권역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하위 지역범주를 결정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지역범주와 같이, 소규모의 시·군의 경우는 인근의 2-3개 시·군이 모아진 형태이거나, 대규모 시(광역시 제외) 하나가 적합하다 하겠다. 이러한 기준으로 최하위 지역범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리구분 분류체계가 최소한 3단계 지역범주 계층구조를 가져야 가능하다. 예를 들면, 영남지방은 1단계(최상위) 지역범주이며 2단계 지역범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북부, 경상북도남부, 경상남도북부, 경상남도남부로 구분할 수 있다. 3단계(최하위) 지역범주는 경상북도북부의 경우 '울진군-영덕군-영양군', '영주시-봉화군', '안동시',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의성군-군위군-청송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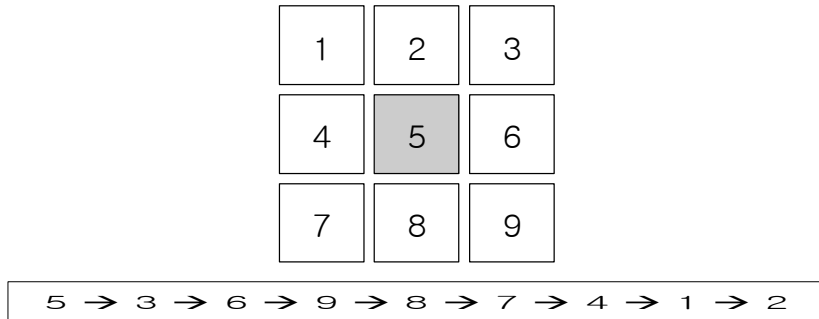
<그림 7> 영남지방 지역범주 예

2. 범주 나열순서

동일 계층단계에서 지역범주의 나열순서는 여러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수직적으로 지리상 북쪽(혹은 남쪽)에서 남쪽(혹은 북쪽)으로 전개, 2) 수평적으로 지리상 서쪽(혹은 동쪽)에서 동쪽(혹은 남쪽)으로 전개, 3) 시계방향 혹은 역시계방향으로 전개, 4) 중심지역에서 주변지역 혹은 역으로 전개시킬 수 있다. KDC에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열순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단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지역범주의 중심이 강조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인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 지역을 생각할 때 그곳의 대표적인 지역을 우선 떠올리게 되므로 우편번호체계와 유사한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우선 중심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인접지역을 우선적으로 시계방향으로 나열하고, 다음으로 주변지역을 시계방향으로 나열하는 방법이 적합하다. 이 방법은 인근지역의 인접성을 최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림 8>에서 보는 순서를 적용한다면, 지역범주가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1 → 2 → 3 → 4 → 5 → 6 → 7 → 8 → 9와 같은 순서를 취한다면, 3지역에서 4지역으로 이동되면서 인접성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중심을 시작으로 외곽으로 변하는 방법이 인접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어떤 나열방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장단점은

6) 김태수, 분류의 이해(서울 :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0), p.134.

존재하게 된다. 특히 나열순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범주의 규모라 생각할 때 적절한 규모는 나열순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지역범주 나열순서

위의 지역범주 나열순서를 기준으로 한반도 남쪽의 1단계 지역범주를 나열하면, 서울 → 기호지방(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도 → 호서지방(대전광역시, 충청남 · 북도) → 영남지방(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 · 북도) → 호남지방(광주광역시, 전라남 · 북도) 및 제주도가 된다. 2단계 지역범주는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남부 → 경상남도북부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남부 → 경상북도북부로 나열할 수 있다. 그리고 3단계 지역범주는 안동시 → ‘영주시-봉화군’ → ‘울진군-영덕군-영양군’, → ‘의성군-군위군-청송군’ → ‘상주시-문경시-예천군’으로 나열할 수 있다(<그림 9> 참조).



<그림 9> 경상북도 북부지방의 지역범주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의 지리구분 분류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십진분류법(KDC)의 한국 지역구분이 가지고 있는 지역범주의 포괄성과 지역범주 나열에 있어서 지역범주의 중복성과 변방 우선의 원칙을 분석하고, 외국 분류체계 분석과 국내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범주에 대해 분석하였다. DDC와 LCC에 의하면, 지역범주 구분 1단계에서 국가별로 나누고,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행정적 구분에 기반을 두고 세분하였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일정한 나열 순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중심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나열하는 순서를 택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범주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소 지역범주에 있어서는 동일 생활권이라 여길 수 있는 지역들을 모아서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초위에, 한국 지리구분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은 3개의 단계로 된 지역범주를 가진 계층구조를 가지는 것이 적합하며, 최하위 지역범주는 2-3개 소규모 시·군을 모으거나 혹은 대규모 1개 시를 범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지역범주의 나열순서는 그 지역범주의 중심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 그리고 주변지역은 시계방향으로 나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향은 한국 지리구분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최소 지역범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동일 생활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동일 지역이란 개념이 역사적, 문화적, 행정적으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주민들의 인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지역에 관련된 정보는 그 지역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동일 생활권이란 주민의 인식이 지역 정보 조직과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